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순교자
대축일 경축이동 제32권 43호(나해) 2012.9.23

[묵상]



새남터 순교성지<서울대교구>

당신 없이 살아가는 이는
참 생명을 지니지 못한 이라고 하시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세상의 주인이신 당신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읍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오나
당신의 말씀 부끄럽게 여기오니
당신을 따르기 위해
나를 버릴 줄도,
나의 십자가 길 줄도 모르오니
당신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그 목숨을 구할 것이라 하신 말씀을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피 흘려 당신을 따르진 못하오나
당신과 한 편임을 기뻐하고,
목숨 바쳐 진리를 증거하고 사랑을 고백한
한국의 순교자들을 자랑스러워하오니
다시 오시는 그 날
각자가 가진 그릇대로
당신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저희를
부끄럽게 여기지는 말아주시시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짜수달 4째토요일)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3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홍찬기 대건안드레아 & 심재순, 김재철 & 주정애
	(생)김병조 마틴 & 박지연 요안나, 성유진 로렌스
주 일 낮 미사	(연)이진심 테레사, 이만춘 마리노, 이경용 야고보, 쾅진 바실리오, 박영춘 안토니오, 고준희 제임스, 서진경 안드레아 & 조명길 루시아, 정원교 요한
	(생)이용무 스테파노, 이윤조 글라라, 도영옥 수산나, 변혜경 올리아나, 이재준 요한 & 조혜란 엘리사벳, 이형삼 요셀 & 이혜숙 요세파나, 모은기 다두 & 모효숙 클라라가정, 토런스 북구역 가정, 문 바티스타 수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지혜서(Wisdom) 3.1-9

화답송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 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겔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제 2독서 로마서(Romans) 8.31-39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던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복 음 루카(Luke) 9.23-26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기뻐하며 왕께	345	343
봉헌	255	270	266
성체	고 백	286	304
파견	야곱의 축복	339	사람나는 어부들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2부 교회 안의 말씀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요한 1,12)

전례, 하느님 말씀의 특전적 장소

하느님 말씀과 성찬례

루카 복음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빵을 드시고 축복하신 다음 쪼개어 그들에게 주셨을 때에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루카 24,31)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루카 24,16)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으로, 그다음에는 빵을 쪼개는 행동으로 계시는 예수님의 현존은 제자들이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게 하고, 그들은 이전에 이미 그분과 함께 겪었던 모든 것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루카 24,32)

55). 이러한 이야기들에서, 성경 스스로 성경이 성찬례와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전례에서 읽고 선포한 하느님 말씀은 계약의 제사와 은총의 잔치, 곧 성찬례를 목표로 나아간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말씀과 성찬은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없이 다른 하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성찬 사건에서 성사적인 삶이 됩니다.

성경이 성찬의 신비를 비추어 주고 설명해 주듯이, 성찬례는 우리에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실상, 성찬 안에 주님께서 실제로 현존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성경 이해는 불완전한 것으로 머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느님 말씀과 성찬신비를, 비록 똑같은 예배는 아닐지라도 똑같이 공경하여 왔습니다. 또한 언제나 어디서나 똑같은 공경을 촉진하고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거행할 때에 성경 읽기를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창립자이신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함께 모여 ‘성경 전체에 걸쳐 그분에 관한 기록들’(루카 24,27)을 읽으며, 주님의 기념제와 성사들로 구원 활동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말씀의 성사적 성격

56). 전례 행위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지니는 수행적 성격을 고찰하고 그리고 말씀과 성찬례 사이의 관계를 더 깊이 살펴봄으로써, 이제 우리는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동안에 떠오른 의미 깊은 주제인 말씀의 성사적 성격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점에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제시의 성사적 성격, 특히 성체성사의 표지”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성체성사 안에서 표시하는 것과 표시되는 것 사이의 나눌 수 없는 단일성이 그 신비의 깊이를 깨닫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라고 말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순교자의 믿음을 본받는 삶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사형집행 전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나의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나는 천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이지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은 후 행복을 찾으려면천주님을 믿으십시오.” 설교가 끝나고 김 신부님은 의연하게 관리들을 향해 “자! 이렇게 하면 나의 목을 쉽게 자르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흔들리지않던 기백과 용기는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모든 것은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으로 가능했습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에는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을 비롯한 103위의 순교성인이 계십니다. 103명 중 79명은 1925년에, 그리고 24명은 1968년에 시복된 후 1984년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기념해 방한하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5월 6일 모두 성인품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9월 순교자 성월을 맞아 많은 분들이 순교성인들의굳은 신앙을 되새기며 성지를 순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대 순교 성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서소문 밖 네거리, 현재의 서소문 근린공원(서울 중구 의주로) 일대입니다. 조선 시대 남소문(현재의 광희문)과 함께 서울 도성의 유해를 성 밖으로 운반하는 곳이었던 서소문 밖 네거리는 신유(1801년)·기해(1839년)·병인(1866년) 박해를 거치며 가장 많은 천주교우들이 처형된 한국 최대 순교지입니다. 103위 성인 가운데 44위, 125위 하느님의 종 가운데 21위가 이곳에서 신앙을 증거하며 처형되었으니 국내 최대이자 세계적 성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영세자 이승훈을 비롯해 정약종, 최창현, 강완숙 등 초기 교회의 대표적인 평

신도 지도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린 곳이 바로 이곳 서소문입니다.

1984년 103위 순교성인 시성을 기념해 서소문 근린공원 내에 ‘순교자 현양탑’을 세우고 많은 신자들이 성지를찾아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소문 근린공원지하에는 재활용품 집하장과 공영주차장 등이 위치하고있고, 철길로 가로막혀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서소문 성지는 학문 연구를 통해 신앙을 찾고 자발적인 노력으로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실천했던 대부분의 평신도들의 순교지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뿐 아니라사회, 종교, 근대사적 가치를 지닌 서소문 순교 문화역사공원 조성이 된다면 세계 최대 천주교 순교 성지가 될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우리 신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우리 신앙인에게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순교성인들의 정신을 본받기 위해 우리 신앙인들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순교 성인들의 후예답게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 신앙의 빛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참 신앙인이 되도록 더한층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한국의 순교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권순길 체칠리아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김교복 레오	모은기 다두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서용숙 에스텔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2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신덕례 데레사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2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성 김대진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이동 : 23일(오늘 주일:본당의 날)

◆ 한가위 합동위령미사

- 9월30일(주일) : 오전 7시30분, 오전 11시 분향예절이 있습니다. (미사예불 사무실에서 접수중입니다.)
- 오전 9시30분 학생미사는 일반주일미사로 봉헌합니다.

◆ 백삼위 본당의 날 행사 안내
구역별 장기자랑대회(6구역)

- 일시 : 오늘 주일(23일) 오후 1시 30분 성전
- 시상 : 1등 \$300, 2등 \$200, 3등 \$100
- 친교나눔 : 오후 5시부터 친교장
- 행사참여 교우들께(참관자 포함) '선물' 증정합니다.

◆ 남가주 제35차 여성 꾸르실료 환영 울뜨레아

- 일시 : 오늘 주일(23일) 오후 7시30분 강당
- 수료자 : 이진원 루시아, 윤두형 유스티나,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 봉사자 : 엄혜은 도로테아

◆ 유권자등록 접수 안내...주일학교에서 한국어로 돕습니다.

- 일시 : 오늘 주일(23일) 각 미사 전후
- 대상 : 18세이상 시민권자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 교장 ☎(213)258-8665

◆ 성 빈첸시오 드폴 사제 기념행사

- 일시 : 9월26일(수) 저녁미사후(하루 앞당겼습니다.)
- 장소 : 강당. 교우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문의 : 박홍룡 요셉 본당 빈첸시오 회장 ☎(310)283-5879

◆ 자모회와 한국학교 기금모금 바자회

- 수거품목 : 할로윈의상, 추수감사절 장식소품, 어린이용 파티드레스&양복, 신발(사용치않은 깨끗한 상태의 물건)
- 수거일시 : 9/23, 10/7, 10/14 주일미사후 친교장
- 바자일시 : 10월21일 주일학생미사후 친교장
- 문의 : 장주란 마리아 자모회 부회장 ☎(310)486-1982
- 교우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 바랍니다.◎

◆ 청년미사(토요특전) 밴드부 재개

9월22일 미사부터 그동안 휴식기를 가졌던 배론청년회 밴드부(팀장 : 박소영 프란체스카)가 다시 시작합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 밴드부에 가입할 청년을 환영합니다.
- 문의 : 박소영 프란체스카 ☎(323)313-7255

◆ 예비자 교리(및 신자 재교육)에 초대합니다.

- 교리시간 :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후(세례신자들 중에 교리를 다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교리지도 : 이장환 마르띠노 본당 신부님

◆ 본당 어르신 온천 효도관광

- 일시 : 10월30일(화) * 장소 :레이크 엘시노 온천장
- 회비 : \$20(1인), \$30(부부, 가족2인 동반시)
- 신청 : 10월16일(화)까지, 55세이상 선착순 45명
- 준비물 : 수영복, 따뜻한 겹옷, 타올
- 주관:안나회 * 문의:한투시아 안나회장 ☎(310)738-4387

◆ 개정된 메디케어 건강보험/올바른 장례준비 강의

- 일시 : 10월21일(주일) 오후 1시
- 장소 : 성전
- 강사 : 이정훈 안셀모
- 문의 : 사회복지분과장 차인수 안드레아 ☎(310)256-6001

◆ 요셉회 교우간 인사 나누기 캠페인

요셉회에서 본당 교우들간에 "서로 인사합니다"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남가주 연합기도회...22일 토요특전미사 후

- 기도회 내용 : 강의, 찬미, 안수
- 강사 : 양창우 요셉 신부(성골롬반 외방선교회)
- 장소 : 백삼위 한인성당
- 대상 : 모든 교우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9월23일(본당의날) : 각구역별 친교점심 준비 주일학교(10학년 핫도그&나초)
- 9월30일(추석) : 토런스 서1반/남1반(한가위음식 나눔) 주일학교(11학년 김밥)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미순	고천용	권오상	김병학	김옥찬	김우용
	김원호	김일선	김정열	김정희	나경흠	모은기
	배태임	송영미	신경훈	안대갑	양영관	윤석구
	이경태	이미경	이용식	이재승	이재우	이종선
	이태옥	이효세	장영우	장준수	전동훈	정상문
	정훈모	조인순	주영석	최기호	최진수	한금순
	이크리스					
	합계 : \$3,375					
미사헌금	\$3,164					
성전헌금	강미순	고천용	권오상	김병학	김우용	김원호
	김정열	김정희	나경흠	모은기	신경훈	안대갑
	양영관	이경태	이용식	이일길	이효세	장영우
	장준수	전동훈	정상문	정훈모	조인순	최기호
	최진수	한금순	이크리스			
	합계 : \$1,975					

공지사항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주일학교 오픈 하우스

- 일정 : 9월30일 초등부(1~5학년), 10월14일 중등부(6~8학년), 10월21일 고등부(9~12학년)
- 시간 : 주일학생미사 후 10시30분~11시30분(수업시간중)
- 장소 : 각학년 교실
- 대상 : 주일학교 학부모, 적극적인 참석 바랍니다.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 교장 ☎(213)258-8665

한국학교주최 '한가위 한마당'

- 일시 : 한가위 주일(9월30일) 오후 1시30분~3시
- 행사내용 : 전통악기(가야금, 장구, 해금, 단소) 공연 및 전통음식(송편, 떡, 과일, 식혜 등) 나누기
- 일반교우들도 많은 참석 바랍니다.
- 협찬 : 배론청년회
- 문의 : 한국학교 교장 김화경 스텔라 ☎(310)464-7490

주일학교 Lock-In

- 날짜 : 10월12/13일(금 오후 7:00~토 오전 9:00)
- 대상 : 6~12학년
- 장소 : 성당
- 준비물 : 슬리퍼, 세면도구, 목주
- 문의 : 박윤희 스테파니아 행사담당교사 ☎(310)613-9116

남가주 소식

남가주 성령기도회 봉사자 피정

- 일시 : 9월28일(금) 오후 4시~30일(주일) 오후 3시까지
- 주제 :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
- 강사 : 양창우 요셉 신부(성 골롬반 의방선교회)
- 대상 : 기초 성령세미나를 마친 모든 교우
- 참가비 : \$100 * 9월23일 신청 마감
- 장소 : 드폴 피정센터
- 문의 : 강혜원 아네스 본당 성령기도회장 ☎(310)780-0369

제14회 미주가톨릭방송(KCBC) 성당대항 골프대회

- 일시 : 10월6일(토) 낮 12시, 샷건 플레이
- 장소 : 패사디나 브룩사이드 골프클럽
- 참가비 : \$100(그린피, 카트, 디너 포함)
- 문의(신청) : 미주가톨릭방송 (213)220-1245
경렌리 (213)500-3852

4박5일 영신수련 침묵 피정

- 일시 : 10월17일(수)~21일(주일)
- 지도 : 배영길 신부(예수회)
- 참가비 : \$450(독방) * 마감 10월10일
- 주최 : 한인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KCLC)
- 장소 : 매리우드 피정센터
- 문의 : 전아네스 (213)507-1144 하세실리아 (323)578-2230

소공동체 9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차장 차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김정희 율리아 780-3787 9/8(토) 오후 6시 성당
	2	김찬구 요한 701-6343	오안젤라, 조마리아 408-7697 9/8(토) 오후 7시 성당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9/14(금)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야외모임 989-0366 9/7(금) 오후 6시 할리웃보울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9/9(주일) 오후 1시 성당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9/9(주일) 오후 1시 성당
토런스 남	1	오창애 안나 974-2857	조준재 요셉 424-263-2493 9/21(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9/18(화) 오전 11시 반미사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본당의 날 행사 대체 9/23(주일)
토런스 북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오세원 아타나시오 490-3358 9/8(토) 오후 6시30분
	2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1/2	주영애 켈마 818-640-3656	주대중 다니엘 818-640-3656 9/8(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고철용 377-6328 9/14(금) 오후 6시30분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9/15(토) 오후 7시 성당강당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796-6763 9/15(토) 오후 7시 성당강당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영희가보라 프란체스카 617-3568 9/11(화) 오전 10시30분 반미사

이번 주 단체 모임

본당의 날 행사	오후 1시30분
----------	----------

다음주 단체모임

한가위 합동위령미사	오전 7시30분, 오전 11시
------------	------------------

순교자의 피는 그리스도 교인의 씨앗이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선교사의 선교 활동 없이 자생적으로 시작한 교회, 가혹한 박해를 통해 성장한 교회, 한국천주교회의 역사는 이 분들이 있기에 자랑스롭습니다. 오늘은 이분들을 현양하며 우리가 가진 신앙의 태도를 새롭게 해야 하는 축일입니다.

순교자란 주님을 위해 복음의 가치를 증거하고 피를 흘려 목숨을 바친 신앙인들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보면 순교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박해로 죽었고, 그 박해를 통해 신앙은 더욱 정화되고 굳건해 졌습니다. 결국 순교자의 피는 그리스도교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천주교회의 순교 역사에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옛날과 같은 대규모 박해에 따른 순교 사건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서는 순교 정신을 어떻게 해석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교부 오리게네스는 “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일상적인 순교라고 보았습니다. 피를 흘려 생명을 바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것이며, 주님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매일 온전한 정신과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복음의 가치를 실천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기념하는 순교자들을 “피의 순교자”로 부릅니다. 그렇지만 피를 흘려 생명을 바치지지는 못했지만 죽음의 순간까지 사목하다가 병사하신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과 협조자들 그리고 근대사 안에서 신앙을 위해 희생된 수많은 신부, 수녀, 교우들을 “삶의 순교자”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순교는 갑자기 이루어지기보다 준비된 이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순교자들에게는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에 충실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매일 기도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선행을 실천하였습니다. 사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고 해성사를 보고 미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박해를 피해 모든 것을 버리고 방랑하던 힘겨운 여정 속에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을 내어놓을 용기를 주십사하고 날마다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순교자적 삶을 산다는 것은 한순간의 다짐이나

생각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가 살아간 삶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순교자적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윤경철 바오로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총장

☞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착한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는가요?

하느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중, 하느님 나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값진 보물을 사는 것과 같다는 비유가 있습니다.(마태 13, 44~46참조)

이 비유는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다 되는 오늘날 특히 오해받기 쉽습니다. 심지어 하느님의 나라도 우리의 돈과 노력으로 얻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밭에 묻힌 보물에 대한 비유(마태 13, 44 참조)는 조금 흥미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하느님의 나라를 살 수 없다는 것을 절묘하게 말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유에 따르면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합니다만 농부는 보물을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보물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자신이 지니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어 팔아도 살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 밭을 삽니다. 그리고 밭 속에 묻힌 보물도 얻게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도, 우리의 재산으로도 도저히 살 수도 얻을 수도 없습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비해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업도 정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느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노력이 소용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해 하느님의 주어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보물이 묻힌 밭을 모든 것을 다 바쳐 샀을 때,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순호 신부 / 부산교구 남산성당 부주임